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여자 복식 특징과 디자인 고증 연구

-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

이언영*[†] · 정희정** · 이인성***

수원여자대학 예술학부 패션코디네이션학과*

한경대학교 의류산업과**,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Dress Design Revealed in Goguryo Tomb Mural Paintings

- By Focusing on Pyeongyang and Its Adjacent Area -

Un-Young Lee*[†], Hee-Jung Jung** and In-Seong Lee***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Suwon Women's College

Dept. of Fashion Apparel, Hankyong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7. 4. 5. 접수 : 2007. 6. 27. 채택)

Abstract

Goguryo is the ancient dynasty which established the system of ancient state earlier than Baekje and Sila, and was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Unlike the rock carving works of prehistoric times, mural paintings composed of line and color tones in tombs are characterized more by its social aspect and symbolism as a serious form of art than other cultural heritage of Goguryo. In response to that, this study analyzed the dress and ornaments of women found in Anak No. 3 ancient tomb, Susan-ri ancient tomb, Ssangyeongchong, which are the ancient tombs in Pyeongyang from 4th century to 5th century, have relatively more ancient tombs than any other places and preserved the mural paintings well, by using the plate, slide, literature and data related to relics in order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dress and ornament in Goguryo, and the lifestyle and social aspect of Goguryo.

Key words: Goguryo(고구려), tomb mural paintings(고분 벽화), the anak No. 3 ancient tomb(안악3호분), Susan-ri tomb(수산리 벽화), Ssangyeongchong(쌍용총).

I. 서론

인간의 미에 대한 관심은 농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식은 미적 가치 척도로써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민족마나의 미의 기

준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패션 산업에 있어서도 '한브랜드 화'를 모토로 전통을 되살리기 위한 전통 복식미의 현대적인 활용과 이를 이용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극이나 영화 등 대중 매체에서 보여지는 복식들은 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디자인 모티브를 얻어 표

* 교신저자 E-mail : beaute210@hanmail.net

현할 뿐 다른 시대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 역사 중에서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이며, 정치와 군사적으로 가장 강성했고, 독창적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구려 시대의 복식에 대한 디자인 분석 및 연구는 중요하다.

고구려가 남긴 문화유산 중, 고분 벽화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화이며, 미술적으로도 동양 최고의 회화로서 문화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고유성 또한 잘 표출하고 있어 고분 벽화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과 문화적 형상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분 벽화에 그려진 소재들을 통하여 고구려인들의 기질과 기상, 종교와 사상, 우주관, 생활관과 풍속, 예절, 남녀 인물들의 복식과 관모, 꾸밈새와 화장법 등 많은 것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인들의 추구했던 여러 가지 문화적 스타일을 면밀히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로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을 연구한 이영미(1994), 양경애(1995)의 고구려 고분 벽화에 표현된 점 문양 복식의 채색 연구, 김기숙(2002)의 고구려 복식의 미학적 연구 등이 있는데,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는 복식의 종류나 양식적 특징을 밝히는 데 집중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고구려 복식의 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아름다움을 재현해 내는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 벽화의 특징을 살펴보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 표현된 여자 복식에 관하여 분석하여 고구려 복식의 미적 특징 고찰을 통해 고구려 복식의 조형미와 양식적인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또한, 미적 가치를 재현하여 고구려 복식 디자인을 고증함으로써 일반인에게 고구려 복식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고구려 복식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복식에 대한 재조명은 고구려 문화유산으로 인한 역사적 소유권 논란 즉, 동북공정에 대한 반감과 대립되어 있는 상황인 시점에서 볼 때 이는 전 세계에 고구려 역사의 재조명 인식과 함께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큰 의의가 있

겠다. 특히 고구려를 주제로 한 MBC-〈주몽〉, SBS-〈연개소문〉, KBS-〈대조영〉 등 역사극이 진행되고 있으며, 드라마 〈주몽〉은 시청률 40%를 넘어서는 등 고구려 역사에 관한 대중의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지역·시대별로 구분하여 다른 벽화에 비해 비교적 화면의 보존 상태도 좋으며, 여자 복식을 알아보기 위한 등장 인물이 많은 14C 중엽~15C에 축조된 전기의 평양권 고분 벽화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평양권의 고분 벽화 중 여자 인물상의 분석이 다른 벽화에 비해 용이한 3개의 고분인 안악 3호분, 수산리 고분 벽화, 쌍영총에 나타난 여인의 복식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인물화와 풍속화를 자료로 사용하되 실물을 직접 볼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로 도판, 슬라이드, 문헌자료를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3개의 고분 벽화에서 고찰한 복식의 특징을 재현하여, 고구려 복식 디자인을 고증하였다.

II. 고분 벽화에 나타난 여자 복식 고찰

1. 안악 3호분(357년)

1) 고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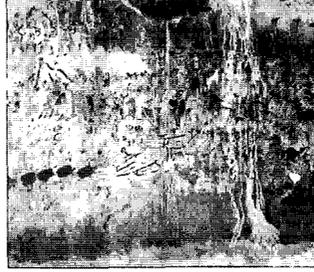
초기 고분 벽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황해도 안악군 유설리에 위치한 축조 연대를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고분으로 북한 국보 제28호이다. 북한의 지정 명칭은 하무덤 ‘동수묘’라고도 하며, 미천왕릉이라 하는 이 무덤은 현무암과 석회암의 큰 판석으로 짜여진 들방무덤(석실봉토분)의 다실묘로 그 규모가 거대하고 표현 양식이 다양하다¹⁾.

〈그림 1〉은 주인공 부인상이 전실 서측실 남벽에 위치하는데, 이는 당시 지배층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주인공은 크게, 시녀 3명은 작게 그리는 위계적인 묘사로 화면은 삼각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림 2〉의 대형열도는 주인공 부인상이 있고 우마에 탄 묘주인과 함께 250여 명에 달하는 인물이 열을 지어 행진하는데 대형열 모습은 조감도 형식으로 그렸다. 또한 벽화에는 부인

1) 김기웅, *한국의 고분 벽화*, (서울: 동화출판사, 1986), p. 105.



〈그림 1〉 안약 3호분-여자 주인공과
시녀(출처: 한국회화사연구).



〈그림 2〉 안약 3호분-대행렬도(출
처: 한국회화사연구).



〈그림 3〉 안약 3호분-대행렬도(출
처: 한국회화사연구).

에서 음식을 만드는 여인(그림 4), 방아 찧는 여인(그림 5), 우물가의 여인(그림 6) 등이 묘사되어 있다. 벽화의 인물들은 중국의 영향으로 중국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그려졌다.

2) 의복 특징

〈그림 1〉의 주인공 부인 복식으로 포속에 백삼(흰색에 소매가 긴 속 저고리)을 입고, 소매가 넓은 긴 우림직령의 노란색 포위에 반비를 착용하고 있다. 포는 적색 바탕에 당초 문양이 화려하게 수가 놓아졌으며, 진동과 소매는 짙은 녹색 선을 대었다. 또한, 팔짱을 낀 소매에는 흰 한삼을 달아 손을 감추어지게 하였으며, 폐술을 착용하였다. 〈그림 3〉의 춤추는 여인에서 치마는 주름이 많지 않은 통치마에 밑단에 선을 장식했으며, 치마를 저고리 위에 입을 형태로 현대의 롱 스커트(long skirt)와 같은 느낌을 준다. 허리 부위에 붉은색과 녹색의 역삼각형 모양으로 된 덧단이 여러 개 늘어뜨려 있다. 견직물로 제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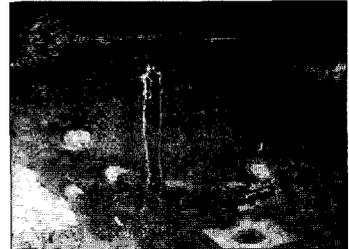
의복의 허리 부분에 고정시킨 것으로 소(髻)라고도 불리고, 역삼각형 형태로 여러 개가 층층이 겹쳐 나타나며 침(襟)이라고도 하였다²⁾. 〈그림 4〉의 부엌 생활 모습에서 나타난 3명의 여인들은 모두 흰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당시의 보통 아낙네 모습이다. 상하가 같은 흰색으로 이루어진 저고리와 치마의 모습으로 소매를 건어 올린 듯이 보이며, 우림의 되어 있는 저고리 깃과 소매 끝동에 다른 색상을 이용한 선 장식을 하였다. 치마는 주름의 모양이 나타나 있지 않아 넓지 않은 치마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림 5〉는 디딜방아를 찧는 여인으로 중국의 여인과 같은 착장 방법으로 저고리도 매우 짧고, 건어 올린 듯한 소매가 현대 저고리와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힙 선에서의 둥근 라인으로 보아 주름이 잡혀있는 발목 길이의 치마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림 6〉을 보면 네모 난 우물가에서 물을 푸고 있는 여인이 있다. 우물의 좌측의 여인은 붉은색의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깃과 소매 모두 저고리와 똑같은 색상을 띄고 있다.



〈그림 4〉 안약 3호분-부엌 생활 모습
(출처: 한국회화사연구).



〈그림 5〉 안약 3호분-디딜방아를 찧
는 여인(출처: 한국회화사연구)



〈그림 6〉 안약 3호분-우물(출처: 고구
려고분벽화).

2)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7호 (1988), p. 155.

소매의 폭은 넓지 않으며, 붉은색 치마 위에 흰색의 앞치마를 착용한 모습이 보인다. 우물의 우측 여인은 앉아있어 치마의 모양은 알 수 없으나 색상은 밝은 흰색이고, 김정애 가까운 색의 깃과 소매 끝동의 장식선이 보인다.

2. 수산리 고분 벽화 (5세기 중기~후기)

1) 고분 특징

수산리 고분 벽화는 남포직할시(南浦直轄市) 내 안구역 수산리에 있는 벽화 고분으로, 우리나라 고대 미술 사상 귀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고분의 추정 연대는 인물 풍속 및 사신도 그리고 장식 문양을 벽화 내용으로 하는 고분들과 공통점이 많은 5세기 고구려 고분이며 1972년에 발굴되었다³⁾. 벽화는 인물풍속도를 주제로 하고 있는데, 북쪽 벽에는 주인공 부부가 장막을 친 화려한 방에서 시중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실내 생활도(그림 7)를 그렸고, 서쪽 벽에는 주인공 부부가 남녀 시중을 거느리고 교예를 구경하는 장면으로 <그림 9>에서는 주인공이 양산을 받으면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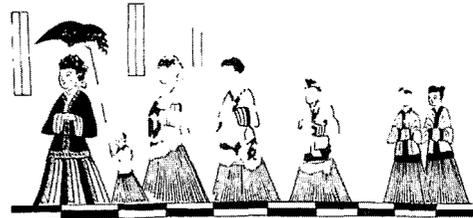
2) 의복 특징

<그림 7>의 여자 주인공은 검은색 긴 저고리에 색동치마를 입었으며, 오른쪽 앞에 있는 시녀는 검은색 긴 저고리에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

주인공 부부의 곡예감상도 <그림 9, 10>에서 보면 여주인공의 옷깃과 소매, 도련 끝에 아름다운 문양을



<그림 7> 수산리 벽화-주인공 부부의 생활도(출처: 한국회화사연구).



<그림 8> 수산리 벽화-곡예감상도 주인공과 시녀(출처: 한국복식사).



<그림 9> 수산리 벽화-곡예감상도 주인공 부부(출처: 한국회화사연구).

수놓은 붉은 선을 달은 검은색 우임의 긴 저고리와 주름마다 5가지색을 교차시킨 폭이 넓은 색동으로 된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 또한, 여주인공을 따르는 시녀 모습이 보이는데 양산을 든 시녀는 검은 선이 둘러져 있는 우임직령형의 긴 저고리에 잔주름이 잡힌 주름치마를 입고 있으며(그림 10), 그 뒤를 따르는



<그림 10> 수산리 벽화-곡예 감상도 여주인공(출처: 한국복식사).

3) 전호태,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 -내세관 표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 66.

또 다른 시녀인 흰솔한 늙은 키의 두 여인이 있는데 (그림 8), 부드러운 어깨의 곡선을 가진 저고리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도련과 끝등으로 뚜렷하게 표현했으며, 삼각 실무엇의 발을 덮는 긴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 또한, 따뜻한 느낌을 주는 윗옷의 색상과 흰색의 치마로 조화시키고, 윗저고리의 검은색 선과 대조시켜 독창적 색감을 표현하였다.

3. 쌍영총(5세기 후기)

1) 고분 특징

평안남도 남포시 용강군 용강읍 안성리에 있으며, 북쪽 구릉위에서 발견된 5세기 말엽의 고구려 벽화 무덤으로,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진지동 1호 무덤’이라고 불렸다. 남향으로 반 지하에 구축한 ‘여(呂)’ 자형 두방무덤으로 앞방 남벽 중앙에 널길 달려 있고, 앞방과 널방 통로 좌우에 8각돌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 쌍영총이라 부르고 북한에서는 ‘쌍기둥 무덤’이라고 한다⁴⁾.

현실 벽화에 위치한 주인공 부부상(그림 11)은 호화로운 장방 안에서 부부가 평상에 정좌하고 있다. 주인공 오른쪽에는 1명의 시종이 주인공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며, 부인의 왼쪽 아래에는 문간에 2명의 시녀가 서 있다. <그림 12>의 현실 동벽 중앙부에 그려져 있는 공양도는 부인이 승려와 공양을 드리러가는 행렬도로 9명의 인물이 행진하고 있다. 이 공양도는 주인공 부인, 시녀, 승려 등 전체 9명의 인물들은 각각의 크기와 표현을 달리하여 일직선상의 행렬장면에 변화를 주고 있는데 신분이 묘사되어 고대 미술이 갖는 특징인 위계적인 표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3>은 고분의 통로 벽에 그려진 벽화로 양 벽에는 소가 끄는 수레의 행렬과 기를 든 개마무사(鎧馬武士)와 그 아래로 세 여인이 보인다.

2) 의복 특징

<그림 11>의 주인공 부부는 평상에 정면을 향하여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검은색 동정이 달린 통이 넓은 주황색 우입직령의 포를 입고 있다. 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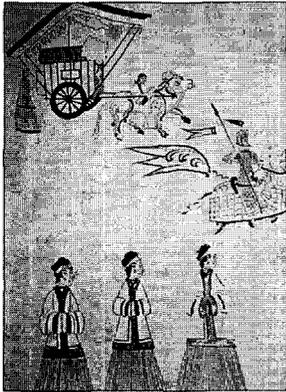
<그림 11> 평상 생활(출처: 한국회화사연구).

앞에는 벗어 놓은 장화 모양의 신들이 코를 마주 하고 있다. 왼쪽 아래에는 2명의 시녀가 있는데 의계에 따른 두드러진 표현으로 주인공 부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게 그려져 있다. 앞에서 서 있는 시녀는 깃과 도련에 검은색의 선이 달린 파란색의 긴 저고리에 연한 파란색의 주름치마를 입고 있으며, 조금 높은 곳에서 서 있는 뒤의 시녀는 깃과 도련에 검은색의 선이 달린 긴 저고리에 연한 파란색의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 공양도(그림 12)에서 가장 크게 표현된 부인상은 붉은색 깃과 끝등이 달린 검은색 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단에는 붉은색 문양이 그려져 있다. 시녀의 저고리는 빨간 끝등이 달린 소매통이 보인다. <그림 13>의 거마 행렬도에 보이는 3명의 여인의 상의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 점 문양이 있는 깃과 도련에 넓은 선이 달린 길고 우입직령의 흰 저고리를 입고 있다. 소매통에 두 손을 넣고 서 있는 모습에서 소매에 2줄의 가선을 볼 수 있다. 잔주름이 잡힌 폭이 넓은 흰색 주름치마를 입고, 쌍영총의 귀부녀의 유에는 계급의 차별을 느끼게 하는 유문선과 부선이 둘러져



<그림 12> 쌍영총의 공양도(출처: 한국회화사연구).

4) 김기용, 고구려 고분 벽화, (서울: 서문당, 1989), p. 278.



〈그림 13〉 거마행렬도(출처: 한국회화사연구).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⁵⁾. 우교차 뒤쪽 여인은 검은색의 깃과 도련이 달린 누런색 우입직령의 긴 저고리를 입고 관짱을 끼고 있으며, 하의로는 잔주름이 잡히고 검은색 단이 달린 주름치마를 입었다.

III. 작품 제작

1. 작품 구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의복은 신분에 따라 형태, 색상에서 차이를 지니며, 직선적인 재단과 상·하의의 서로 다른 배색, 문양과 가선 등의 이색적인 장식선이 특징적으로 보여졌다.

본 연구에서는 안악 3호분의 여자 주인공과 수산리 벽화의 곡예 감상도의 여인, 쌍영총의 거마 행렬도의 여인의 복식을 비교하여 3작품의 고구려 복식 재현을 시도하였다. 재현 연구에 있어 시대에 따른 표현 양식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다소 다른 형태로 묘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정하여 본 논문에서는 재현할 기본 size를 선정하였는데, 총장은 인체 body의 키를 조절하여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158cm로, 화장은 기본 여자 size인 75cm로 정하여 비례를 대입하였다. 고분 벽화의 그림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에 실려 있는 사진을 이용하여 총

장과의 비례를 대입하였다거나 약 10배라는 수치가 나왔다. 이를 적용하여 벽화에서 저고리 길이는 8.4cm였으므로 재현 길이는 84cm로 하였고, 치마는 허리부터 치마 밑단까지 길이 약 1.19cm를 10배하여 약 120cm로 재현하였다. 화장의 길이는 손을 모으고 있었으므로 그 치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손이 여머졌을 때 손이 보이는지의 여부에 따라 길이를 기본 size에다 약 10~15cm 추가하여 길게 재단하였다.

작품으로 재현할 안악 3호분의 여자 주인공과 수산리 벽화의 곡예 감상도의 여인, 쌍영총의 거마 행렬도의 여인의 복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안악 3호분의 여주인공 복식을 보면 상의는 포속에 백삼을 입고, 소매가 넓은 긴 우입직령의 노란색 포 위에 붉은색의 반비를 착용하고 있다. 붉은색 바탕에는 운당초문을 화려하게 수놓았거나 직급 뵈었고, 진동돌래와 소매에 짙은 녹색 선을 대었다. 소매는 흰 한삼을 달았으며, 폐슬을 착용하였다. 하의에는 미색의 통치마에 잔주름을 잡은 치마 단이 보이며, 옆에 띠와 치마고름 같은 것이 보인다.

수산리 벽화의 곡예 감상도 여주인공 복식은 옷깃과 소매, 도련 끝에 아름다운 당초 문양을 수가 놓여진 붉은색의 선을 단 긴 저고리 위에 폐슬을 착용하였으며, 하의로는 오방색을 이용한 5가지의 색으로 이어 붙인 색동치마를 입고 있다.

쌍영총의 거마 행렬도의 주인공 부인의 복식은 깨끗하고 단아한 연분홍색의 긴 저고리에 잔잔하게 주름이 잡힌 치마를 입고 있는데, 깃과의 색 대비를 크게 이루고 있다. 저고리에는 가선 장식이 되어 있어 특징적이고, 깃과 도련에 수를 저고리의 색상과 동일하게 놓았다. 또한, 깃 돌래에 자주색의 얇은 선을 둘러주어 깔끔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하의는 뽕뽕한 재질감을 보이는 주름치마로 삼각형 구도를 그리고 있다. 3가지 벽화에 나타난 복식 형태 중에 안악 3호분의 복식은 수산리 벽화나 쌍영총과는 달리 상의의 형태와 구조에서 우리 고유의 복식이 아닌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의복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열거한 3가지 벽화의 복식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5) 권재영, “북조시대 문황 석실벽화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일반복식의 비교연구” (상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122.

<표 1> 벽화에 나타난 복식 특징

구분명	여자 복식					
	상의			하의		
	형태	색	선, 문양	형태	색	선, 문양
안악3호분	포, 저고리, 백삼, 반비	흰색	운당초 문양	치마	흰색	
수산리	우임직령 저고리	흰색, 검은색	가선	치마	붉은색, 흰색, 검은색	줄 색동, 가선
쌍영총	저고리	붉은색, 흰색, 검은색, 황금색	점 문양	치마	흰색, 파란색, 노란색	가선, 점 문양

2. 작품 설명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1) 재현 작품 I

(1) 속 저고리 (백삼)

- ① 소재: 실크 양단
- ② 색상: 미색
- ③ 재현 특징: 제일 안쪽에 입는 옷으로 문양이나 장식은 없다.

깃의 색은 몸판과 같은 색이고, 흰 한삼이 포 밖으로 나와 손을 감출 수 있는 만큼의 긴 소매 길이로 표현하였다.

(2) 저고리(유)

- ① 소재: 실크 양단
- ② 색상: 황금 노란색
- ③ 재현 특징: 넓고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 밑이 볼록하고 수구로 갈수록 모아지는 형태의 소매를 제작하였고, 끝동에 초록색 선을 대었다. 또한 당초문양의 자수를 표현하였다.

(3) 반비

- ① 소재: 실크 양단
- ② 색상: 자주색
- ③ 재현 특징: 저고리의 색상과 동일한 운당초 문양을 수놓았다.

포위에 덧입는 형식으로 크고 길게 표현하되 짧은 소매가 특징적이며, 소매 끝과 밑단둘레에 짙은 녹색 선을 대었다. 밑 부분이 당의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황색 당초 문양 자수로

(4) 허리띠

- ① 소재: 실크 양단
- ② 색상: 진한 초록색
- ③ 재현 특징: 부인이 손을 모은 자세를 하고 있어 벽화에서 허리띠의 색상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나, 장식선인 진한 녹색일 것이라 가정하여 제작하였다.

(5) 거(裾)

- ① 소재: 실크 양단
- ② 색상: 진한 녹색, 자주색
- ③ 재현 특징: 저고리 아랫단에 역삼각형의 천을 잘라 붙인 장식으로 진한 녹색의 선을 덧대어 강조하였다.

(6) 치마(상)

- ① 소재: 실크 양단
- ② 색상: 연한 산호색, 진한 녹색
- ③ 재현 특징: 길이가 길고, 품이 넉넉하게 보이도록 44인치 3쪽을 이어 주름을 많이 잡은 긴 통치마로 제작하였다. 치마 밑단에는 진한 녹색 선을 두르고, 붉은색의 운당초 문양의 수를 놓았다.

2) 재현 작품 II

(1) 저고리(유)

- ① 소재: 산탄 실크
- ② 색상: 진한 자주색, 주황색
- ③ 재현 특징: 자주색 우임 저고리에 깃과 소매에

는 주황색의 선을 대 주었고, 저고리 밑단 도련에 금 색수를 놓아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2) 캐슬

① 소재: 산탄실크

② 색상: 자주색

③ 재현 특징: 가로 28cm, 세로 40cm로 제작하고, 당초 문양을 수놓아 저고리 밑단과 연결되는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3) 허리띠

① 소재: 산탄 실크

② 색상: 자주색

③ 재현 특징: 가로 200cm, 세로 7cm으로 제작하고, 금색으로 3줄의 원모양을 수놓았다.

(4) 치마(상)

① 소재: 산탄 실크

② 색상: 오방색

③ 재현 특징: 고분 벽화에 나타난 재단 해석은 다양하다. 그 당시 사선재단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되어 일자재단으로 허리 부분부터 주름을 표현하였다. 한가지의 색을 10cm로 재단하여 5가지의 색을 연결하고, 이것을 5개씩 반복하여 25개의 폭을 이은 색동 주름치마를 제작하였다.

3) 재현 작품 III

(1) 저고리(유)

① 소재: 산탄 실크

② 색상: 연한 분홍색, 자주색

③ 재현 특징: 깃과 끝등을 자주색으로 표현하고 황색의 수를 놓아 도련을 돌렸다. 소매는 양손이 감추어 질 수 있도록 길게 재단하였다.

(2) 허리띠

① 소재: 산탄 실크

② 색상: 자주색

③ 재현 특징: 가로 200cm, 세로 7cm로 저고리의 자수와 연결되도록 하였다.

(3) 치마(상)

① 소재: 산탄 실크

② 색상: 연한 옥색

③ 재현 특징: 잔잔한 주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옥색의 44인치 원단 3폭을 이어 1.3cm 나비의 기계주름을 잡아 긴 주름치마를 표현하되, 허리 부분에 더 많은 주름을 잡아주었다.

이상으로 재현한 3작품은 <그림 14>와 같다.

IV. 결 론

고구려 고분 벽화는 삼국 중에서 가장 회화 자료가 많이 남겨져 있는데, 그림의 주제로는 당시의 영생



재현 작품 I



재현 작품 II



재현 작품 III

<그림 14>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 재현 작품.

사상을 보여주는 듯 무덤 주인의 생전 생활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선이 강하게 표현되어 대담한 고구려인의 기상을 볼 수 있으며, 풍속, 예절, 복식, 미용 등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 특징을 살펴보면 직선적인 재단으로 절개선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있으며, 복식마다 가장자리에 누른 이색 선 장식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복식에 나타난 색상은 부분적이며 제한적이었지만, 대부분의 복식은 상의와 하의에 서로 다른 색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운당초, 당초, 가선, 점 문양 등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 3벌의 고구려 복식은 재현으로 안악 3호분의 상의 형태와 구조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복식 양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수산리 벽화 고분과 쌍영총에서 보이는 상의는 긴 저고리에 대를 돌려 입은 우리 고유의 민족 복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에 영향을 받은 복식이 중기, 후기로 갈수록 토착화되고 정착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하의는 치마의 다양한 형태를 엿볼 수 있었는데 주름치마, 색동치마, 주름이 없는 치마 등이 나타났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 이제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복식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실물을 직접 볼 수 없으며, 또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여 복식고증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참고문헌

- 김기웅 (1991). *고분*, 서울: 대원사.
- 김기웅 (1989). *고대벽화기원*, 서울: 미술세계.
- 김기웅 (1989). *한국의 고분 벽화*, 서울: 동화출판사.
- 김미자 (1988).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17호.
- 권재영 (2000). "북조시대 돈황 석실벽화와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일반 복식의 비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선 (1999). "고구려 고분 벽화 인물상의 복식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정 (1995). "상과 군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혁 (1997).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원, 소영진 (2002), "한국의 전통적 미의식과 오방색의 관계연구." *한국미술학회지* 제 6권 3호.
- 박성희 (1995).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인물풍속도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송옥 (1998).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 유송옥 (1980). "고구려 복식에 관한 연구-동서복식 교류면에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1994). "고분 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복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호, 유흥준 (1995). *고구려벽화해설*, 서울: 도서출판 풀빛.
- 장경혜 (1990).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복식미의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호태 (2004). *고구려 고분 벽화 연구*, 서울: 사계절.
- 주영현 (1986).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하여*, 동경: 조선화보사.
- 천석근 (1996). *안악 제3호 무덤벽화의 복식에 대하여*, 서울: 조조고고연구.